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답변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신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김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가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 불교는 끝간 데 없는 진리

여러분의 신심이 돈독해서 이 자리에 공부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됐습니다. 법당에 부처님 한 분을 모셔 놓은 것은, 여러분 몸과 마음이 아닌 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내 고깃덩어리를 보지 말고 내 곁수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정신계와 물질계가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줄 모르고 항상 기록으로써 허덕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말라는 권리는 없습니까? 앞으로는 미래의 정신계와 더불어 같이 내 마음의 굴레를 굴리지 않으면 절대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공부를, 불교는 영원한 근본의 생명, 움직여지지 않는 근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교(敎)이기 때문에 불교라고 한 것입니다. 단어 그대로 불교라는 것은 영원한, 즉 말하자면 끝간 데 없는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불·바람·흙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화·풍으로서 동채였고, 생명이 생겨났고, 생명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수 억겁을 거쳐서 진화해서 인간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이 말을 하려면 하도 깊어서, 말한 사이도 없고 말 한마디하면 과거로 그냥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머리가 어딘지 발이 어딘지 모르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납득 못할는지 모르겠습니까? 불교는 끝간 데 없이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듯, 부처님의 말씀은 우주 전체의 불 바뀌라고 하고 불성을 먼저 알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블랙홀이라고 말할지라도 블랙홀이라는 그 자체의 생산체는 바로 내 가슴에 직결돼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지금 여러분이 안이하게, 이 울산 지역에서 사나간 답을 등그렇게 쳐 놓고 천야만아하게 떨어질 줄 모르고 답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번 바깥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땅 속이나 물 속이나 저 허공이나 다른 혹성이나 별성이나 어디고 다니는 데 없이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화·풍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은 그게 바탕이 돼서 오신통이라는 문제도 굴릴 수 있는 그런 법바퀴입니다.

그 법바퀴를 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앞에 바탕으로 돼있는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쓰고 있고 의학적으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충만히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50%의 저 인력을 몰라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50%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차 말하지만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서 생명이 생겨나서 미생물의 시대도 있었고, 곤충의 시대도 있었고, 공룡의 시대도 있었고, 난쪽한 짐승들의 시대도 있었고, 인간이 될 수 있는 진화력을 가지고 실험하는 시대도 있었고, 인간이 증발해 버리는 그런 시대도 있을 겁니다. 법당에 가서 좌절해 해달라고 비는 게 불자인 줄 알지 마십시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다 불자입니다. 불자라면 불자 노릇을 해야 불자가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기의 근본을 알고, 우주의 근본이 자기의 근본 속에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모두 가시리 돼서 마음속의 근본에 같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허공을 믿을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을 것도 아니고, 우리 스님네들고 깃털여리를 믿을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는 그 속에 바로 부처가 있고 법신이 있고

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여지지 않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가 있고, 마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몸이 움직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끌고 갑니까, 저 허공에 부처가 있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몸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과거에 살 때 인연을 맺은 것만큼, 악으로 맺었으면 악이요, 선으로 맺었으면 선이요, 악업 선업이 다 인연으로 인해서 만나 바로 여러분의 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몸 속에서 시키는 대로, 좌와가 일어나는 대로 입력이 돼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떠나서 저리로 가면 잘되겠지, 이 직장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면 잘되겠지 하지만 여러분의 입력기가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리, 탐지기, 무전통신기, 천체만원경,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교에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로 바뀌어 얘기했습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불가에서 말하는 건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천안통 속명통 그 다섯 가지를 굴릴 수 있는, 바깥으로 벗어나서 그걸 굴릴 수 있는 지배인을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뜻을 생각해서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행하고, 똑바로 말하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딱할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알아라고 하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인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그건 이름입니다. 만약에 혈관이 막히고 동맥이어서 그것을 알아라고 이름 지어 놨다면 암인 것입니다. 그러나 암이라고 한다고 해서 미리 숙지 마시고 그 이름을 질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바깥에 있는 건 더럽고 무섭고 징그럽지만, 그 징그럽고 더럽고 무서운 것들이 전부 나를 운행 해주고 나를 움직여지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또는 파멸을 일으켜서 나를 못 살게 만들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두서 없이 말한다고 해서 두서없이 들어서는 안됩니다. 두서 없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두서 없이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가깝고 여러분이 지금 지구 속에서 지구를 집 삼아서 살고 있고, 저기가 우리 몸이라면 몸 속에 사는 생명체들처럼 우리도 지구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붙어서 살고 있을까요? 적든 크든 모두 생긴 것도 다르고 차원들도 달라서 이 소임을 맡은 사람이 있고, 저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그릇대로 맡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릇들을 보십시오. 종지가 있는가 하면 큰 그릇이 있고, 그렇게 여러 층이듯이 사람들의 차원도 도량들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연못이 있으면 그걸 찌지 않고 살수가 있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역대 조사들도, 만약에 너희가 바깥으로 찾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마귀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돌로 보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한데 떨어져서 마구니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이 지극하고

속기나 하고 망하고 구멍에 빠지고, 속고 속이는 마음들을 가지고서 살아나가니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새삼스럽게 이런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미생물의 모든 의식들은 좋고 나쁘고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가 저거 죽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따라 주고, 여러분이 선한 일 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따라주지만 합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속에 있는 것뿐이 아닙니다. 벌레들도 좋고 나쁜 거를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저 막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몸을 잡아먹고 잡아먹히지는 않아요 정신이 잡혀 먹고 먹고 먹고 그렇습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지배인의 자격을 가졌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죠. 인간은 좋고 나쁘고 잘 알고 있으니까요. 좋고 나쁘고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이, 모든 중생들이 모르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하화중생입니다. 내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삼구보리 하화중생을 먼저 알아야 여러분 몸 속의 좋고 나쁜 거를 아는 마음,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는 다스리는 마음, 나라는 아집과 착을 다 놓고 다스려 나가는 그 마음이 바로 천백억화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32중신으로 모든 중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약에 악이 와서 '날 좀 살려주세요' 하면은 돌이 아니게 한가움을 내서 바로 건

금 밍지더라도 말입니다. 돌로 보지않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다 할지라도 고정되게 나쁜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도 고정되게 좋은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모를 때에 내 모습으로 생각하고, 어린 사람은 내 형태로 생각하고 내 자식, 내 부모로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수많은 해골더미에 큰절을 하셨다고 했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생자부인 아버지인데 어찌 해골에다가 큰절을 하십니까 하나, 수 억겁을 거쳐오면서 차원에 따라서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만나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수 억겁을 거쳐 나왔으니 저 해골이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절을 안 하겠느냐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와 같이 네 부모 내 부모가 없고, 네 자식 내 자식이 없고, 네 형제 내 형제가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은 질단 모이듯 한 식구가 인연 따라서 그릇대로 모였다가 또 사대로 흩어지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차원끼리 또 만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의 부모만 내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저리로 돌아가서 내 부모가 됐다면 또 어떡하시겠습니까? 수없이 거듭 거듭 돌아가면서 거쳐 나왔으니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고 내 자식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이고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절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말한 공산주의 행동이 독재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마음을 평등하게 쓰면서 그냥 사는 사람보다도 더 기가 막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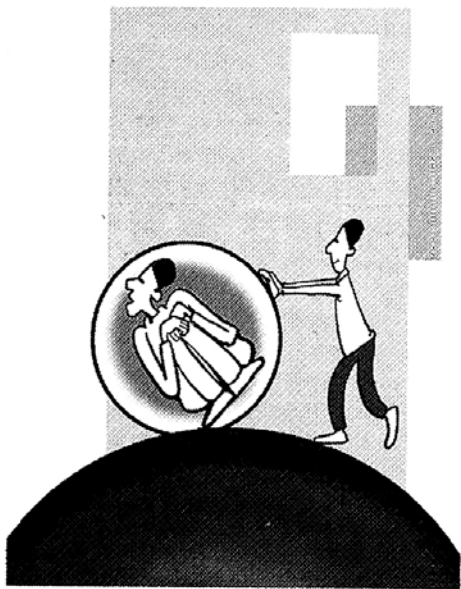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생각들, 지금 살아가는 생각들이 자주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간 법계에서 다 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 속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며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기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겁니다.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 남에게 못되게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잘했으면 즐겁고, 남한테 좋은 일을 했으면 즐거운 마음을 가질 테고, 남을 언짢게 생각했다면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한테 모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한 찰나에 연락이 되며, 한 찰나에 들고나며, 한 찰나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습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다. 그렇다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일으키지 못하듯이,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꺾지 못하듯이 여러분이 지금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려면 어떠한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한테 항상 말해드리는 것은 그 입력기가 바로 여러분한테 있고, 팩시밀리

그 능력을,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한테 있다는 것은 바로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발전소가 됩니까? 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은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있고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부 각자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축성입니다.

그 축성 속에는 뭐가 살까요? 생명체가 별칭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모습은 그림자처럼 운행을 안 해준다면 우리가 못 사니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의 별칭인 것입니다. 축성은 들레라고 한다면 별칭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이날까지 왔다는 증명서입니다.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그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한 번 바깥을 보십시오.

## 광력·전력·자력·통신력이 누구에게나 충만함을 알아야...

아무리 이론으로 무분통진 설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구니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력이 없다고 그랬죠. 우린 사랑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더불어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입력이 되어서, 그렇게 서로서 주고받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나무는 밤이면 나오는 게 있고 사람은 낮에 나가고 밤에 주는 게 있고 낮에 받고 살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 산소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고 말입니다. 고거 한마디만 해도 증명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마음 속의 주인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에너지와 혼은 다 뺏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 속에 자력이라고 하기 이전에 큰 자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만 바깥에 있는 쫓겨나가는 여러 가지 자력이 없으면 조그마한 내 자식 하나 있는 것마저도 다 탄 데로 가서 불어버려요. 원리가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 빈 집이 돼서 주인도 없고 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주 에너지와 혼을 뺏기고 빈집이 되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아귀들같이 유전성이냐 영계성이냐 세균성 세포성이냐 다가는 겁니다. 와도 그것을 어떻게 카바를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실천하는 데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데서 또 실험을 하면서 우리는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남한테 기대는 마음, 항상 남을 믿고 보증이나 서주는 마음, 남한테

저주고,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한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 세상에 모두가 나일 뿐이고, 나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내 자리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으니 끝간 데 없는 진리,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가 땅을 딛고 있는 것도 내 발이기에 바로 평발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발이 뭉뚱해서 평발이 아니라, 벌레 발 하나도 내 발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평발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들으니 가슴이 웃고 한가움이 되었으니 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돌이 아닌 한가움이라고 가르쳐주셨고, 나아가서 그 꽃을 들고선 대중 속으로 들어가셨으니 모두가 한자리요. 한 몸이라는 뜻을 일러 주셨습니다. 말없이 일러줬다고 해서 무시하면은 아니 되죠. 그 뜻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한 거지, 말이 중요하고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교를 믿을 때에 울 바로,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풀 한 포기만 남아도 아니, 흙만 있어도 불교는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그 네 가지로 벗어날 몸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도 물에 가면 물이 좋고, 산천초목을 보면은 좋죠? 그렇게 신선하고 좋죠! 여러분의 고향이니까 그런 겁니다. 수 억겁 광년을 거쳐왔다 하더라도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천초목에서 뛰어 놀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들에서 뛰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의 정신, 혼을 뺏기고 뺏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서야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몸 속에 식구들이, 악업 선업의 인연들을 가지고 그것을 다 보살로 화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마음, 한마음! 다스리는 마음, 아집이라는 마음, 착이라는 마음을 다 다스리면서 겸손하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동, 남을 이익하게 하는 마음, 자기가 조

일이죠.

한마디 말할 것은 일본에서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활약으로 인해 불교라면 자지러져서 불교국으로 아주 삼았지 않습니까. 생활을 불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교에서 따간 것이 뭘 줄 아십니까? 가사 장삼을 하오리로 만들었고, 오조 가사를 사무라이 총병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악습입니까? 처음에는 행전을 당코바지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각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바투 공양을 공기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글도 우리 들한테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혼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이 먼저 향을 쬐면 자기기가 쬐어놓은 거 빼 버렸다고 그냥 야단치고, 물 떠다 놓고 초 켜놓고 이래야만 정성드리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남이 향을 쬐어놓고 초를 켜놓았다 하더라도 수천 수만 이 초 한가닥에 밝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남이 쬐어놓은 거고 내가 쬐어 놓은 거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 침착한 마음으로 서로 뺏고 먼저하고 나중하고 이렇게 생각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이 지극하면 마음의 등이 밝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뺏으면 영원한 밝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의 인등을 쬐신다면 아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밝고 공명적인 것이로되, 백일기도만 드리면은 나중에는 지구가 안 돌아가냐? 백일기도만 드릴 때만 지구가 돌아가고 백일기도 드릴 때만 자기가 모두 움직여나오냐? 백일기도 드리고 난 뒤에야는 어떠한 겁니다, 불이 꺼져도 괜찮습니까?

이 세상 진리는 항상 밝고 항상 움직여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바퀴를 돌아가고, 불바퀴는 별칭이나 우리 사는 축성 모두 운동하는 데서 바로 에너지가